



‘상상된 경계들’을 주제로 비엔날레전시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막한 2018광주비엔날레가 오는 11일 막을 내린다. 정찬부 작가의 설치작품 ‘피어나다’.

비엔날레 11일 폐막...관람 서두르세요

지난 9월 7일 개막한 2018 광주비엔날레가 오는 11일 막을 내린다. 전시 기간이 길어 관람을 미뤘던 이들이 있다면 이번 주말, 시간을 내 전장을 방문해 보는 건 어떨까. 특히 옛 국군광주병원에서 진행중인 GB 커미션 전시의 경우 안전문제 등으로 관람인원이 제한되고 도슨트와 함께 이동해야하는 등 관람 기회가 많지 않으므로 서두르는 게 좋다. 아핏차퐁 위타세타룬의 ‘별자리’는 밤에 관람하면 색다른 느낌을 느낄 수 있어 시간 관리가 필요하다.

‘상상된 경계들’을 주제로 융복합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고 있는 7개의 주제전에서는 지구촌의 이주와 난민, 식민, 냉전, 인터넷 격차, 젠더와 인종 등 보이지는 않지만 현대 사회 들어 더 ‘견고해지는’ 다양한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다.

그리타 가위워 기획의 ‘경계라는 환영을 마주하며’는 ‘난민’과 ‘이주’ ‘국경’ 등의 문제를 조망한다. 호 추 니엔의 ‘이름 없는 존재&이름’은 40여년 달하는 긴 영상 작품이지만 흥미로운 스토리와 편집으로 몰입도를 높인다. 할릴 알티데레가 시리아 난민 위기를 다룬 ‘우주 난민’과 ‘괴폐테 항공사’ 포스터는 유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몽환하다. 또 ‘산들 바람이 우리 위로 지나갔다’는 4분 분량의 아주 짧은 영상이지만 난민에 대한 이야기를 ‘시적’으로 풀어내 감동을 준다. 톰 니콜슨과 그레이스 샴보가 협업한 ‘나는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났다’ 등 두 작품은 관람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헤드폰을 쓰고 12개의 스크린에서 흘러나오는 난민들의 증언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이야기를 조각으로 만든 작품까지 함께 감상한다.

4전시실의 ‘종말들:포스트 인터넷 시대의 참여 정치’는 무거운 주제의 작품들을 경쾌하게 풀어내 눈길을 끌었다. 선우 훈의 ‘평면이 새로운 깊이’는 웹툰 형식에 기반한 작품으로 관객들이 마우스를 조작하며 집단적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김아영 작가의 ‘다공성 계곡, 이동식 공국’은 공상과 현실의 상상력이 더해진 작

난민·이주·국경 ‘경계’ 조명 두 달 비엔날레 전시관·문화전당 주 전시 옛 광주국군병원 예약 후 관람 무작사·이강하미술관서도 감상 2·3일 GB토코·아티스트 대화

품으로 호기심을 자아낸다. 문화전당 전시는 관객들이 좀 더 편하게 관람할 수 있는 작품들로 친근하게 다가온다. 1995년 크초의 ‘잃어버리기 위하여’와 제1회 행사 때 등장했던 만장, 이용노의 ‘군상’ 등 역대 비엔날레 참여작들도 만날 수 있다.

9·11 이후 심화된 감시와 시민권의 문제를 손꼽은 크기의 사진 수만장으로 구성된 하산 엘라히의 작품 ‘수많은 작은 형제들’, 수천개의 플라스틱 튜브를 활용한 설치구조물을 통해 낭비와 과잉의 문제를 드러낸 티라 노노반의 작품, 세계 여러 바다의 물을 섞으면서 국가의 경계를 허무는 행위 자체가 예술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프란시스 알리스의 ‘워터칼라’와 우리가 상식처럼 받아들였던 국가의 경계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무제 시리즈’, 일상을 지배하는 규칙의 문제를 유쾌하게 풀어낸 루크 칭의 ‘국경 넘어에서의 유죄 판결 : 홍콩 / 한국’ 등도 인상적이다.

김만석&김성우&백종옥이 기획한 ‘생존의 기술: 집결하기, 지속하기, 변화하기’는 한국 작가 35명을 초대해 역동적인 전시를 만들어내 눈길을 끈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일어난 국가폭력으로 희생된 사람들에게 대한 기록이나 증언을 당대의 신문지를 으깨어 비석으로 제작해 바닥에 설치한 여성희의 ‘검은 대지’, 기둥에 국가, 찬송가, 군가 등에서 따온 어구들을 음각으로 새겨놓은 최기창의 ‘더, 한 번 더, 그 길로는 충분치 않아’ 등은 눈여겨 볼 작품이다.

관람객들이 많은 관심을 나타낸 ‘북한미술:사회주의 사실주의의 패러독스’ 전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조선회를 만날 수 있다. 이번 비엔날레의 가장 큰 화제 중 하나는 광주의 역사성을 반영한 장소특정적 신작 프로젝트 ‘GB커미션’을 통해 ‘발견’된 옛 국군광주병원의 존재다. 이곳에서 만나는 작품은 5·18의 상흔을 담고 있는, 건물 자체가 주는 이야기까지 더해져 깊은 울림을 준다.

병원 복도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가면 카데르 아티아의 작품 ‘영원한 지금’을 만난다. 창살이 쳐진 각각의 병실에는 천장까지 달을듯한 나무 기둥들이 서 있다. 작가는 광주 지역의 오래된 집에서 가져온 기둥들을 세우고, 상처를 치유하듯, 균열된 부분을 금속으로 묶어 두었다. 병원에서 가져온 의자와 의족, 5·18 관련자들의 인터뷰를 담은 영상으로 구성된 아티아의 또 다른 작품 ‘이동하는 경계들’은 비엔날레 2전시실에도 만날 수 있다.

아핏차퐁 위타세타룬의 작품 ‘별자리’는 대강당을 비롯해 병실, 이발소, 당구장 등 공간을 이동하며 만나는 장소특정적 설치 작품으로 관람객들은 작가가 곳곳에 설치한 조명과 소리, 영상과 오브제를 만난다. 병원 본관 옆 붉은 벽돌의 ‘국광교회’에는 병원에서 떼어낸 수십개의 거울로 만든 마이크 넬슨의 ‘거울의 울림’이 전시돼 있다. 카데르 아티아와 마이크 넬슨 작품은 오후 1시부터 3시30분까지 6회 관람 가능하며 아핏차퐁 작품은 오후 5시30분, 7시 두 차례 만날 수 있다.

그밖에 헬싱키국제아티스트 프로그램 전시(무작사 로터스 갤러리)에서는 이매리, 이미레, 알리나 바이오나 등 핀란드와 한국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으며 필리핀 현대미술 네트워크의 ‘핫하우스’전이 열리는 이강하미술관과 핫 미술관에서는 이세현 작가 등 6명의 작품이 전시된다.

한편 2일 오후 2시에는 문화전당에서 백종옥 큐레이터와 이정록·소운경·박상하·정찬부 작가가 참여하는 GB토코가 열리며 3일 오후 2시(비엔날레 전시관 5전시실)에서는 ‘경계라는 환영을 맞이하여’ 색채에서 영상 작품 ‘모래와 섬의 분리’를 전시 중인 수티타 수파파리야의 아티스트 토크 ‘풍경들-우리 시대의 반영’이 열린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거리예술로 승화된 광주학생독립운동

광주프린지페스티벌 내일 5·18 민주광장서

‘지금 이 시대에 왜 광주학생독립운동을 기억해야 하는가’

올해로 89주년을 맞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을 거리예술로 승화시킨 작품이 공연된다. 작품은 한마디로 5·18 민주광장에서 예술로 피어나는 독립의 역사다.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의 기획창작공연 ‘호남선’과 ‘광주학생독립운동 마임 퍼포먼스’가 3일 5·18 민주광장에서 진행된다.

‘돌움무용단’의 ‘호남선’은 일제강점기 광주학생독립운동부터 현재의 소년상에 이르기까지,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과제를 춤과 드라마의 콜라보 형식으로 창작했다.

광주지역의 배우들이 만든 마임그룹 ‘모자이크’의 ‘광주학생독립운동 마임 퍼포먼스’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의 계기가 된 일본 남고생의 한국 여고생 희롱사건을 다룬다. 한국 학생들의 저항과 투쟁의 역사를 생동감 있게 재현해 지난 역사가 오늘날에도 생생하게 숨 쉬는 역사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밖에 지역 대표 청소년단체들이 이슈를 공유하는 ‘독립광장카페’를 비롯해 제6회 청소년 사회 참여대회 및 정책제안대회도 펼쳐진다. 광장카페에서는 청소년들이 차를 마시며 대화와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문의 062-223-0410.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민족시인 신석정 ‘시·가·무 콘서트’ 내일 문화전당 무료

민족시인 신석정(사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신석정 시·가·무 콘서트’가 3일 오후 4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극장 3에서 열린다. ‘춧불’, ‘슬픈 목가’로 유명한 신석정(1907-1974) 시인의 작품을 낭송하는데 고치지 않고 노래와 춤을 결집한 무대를 마련했다. 이번 공연은 사단법인 시위는 문화 김윤아 대표가 기획하고 김현숙 국립부산국악원지도단원이 연출, 소재호 시인이 극본을 맡았다.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1장 가슴에 지는 낙화소리’, ‘2장 어머니 기억’, ‘3장 차라리 한 그루 푸른 대로’, ‘4장 저 하늘을 우러러



보는 뜻은’, ‘5장 아름다운 나라’ 등으로 채워진다. ‘아름다운 나라’, ‘나 가거든’ 등의 익숙한 노래를 무대에 올리고 지전춤, 태평무 등 우리 전통 춤으로 분위기를 돋운다. 신석정의 좌우명 ‘지재 고산 류수(志在 高山 流水)’를 리홍

재 작가의 서예 퍼포먼스로 감상하고 ‘임께서 부르시면’을 허화열 명인의 시조창 공연으로 만난다.

전석 초대. 문의 010-3621-0856.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대한민국 전통예술 가·무·악·고법 대제전

광주국악협회, 내일 전통문화관

광주국악협회(회장 함태선) ‘제11회 대한민국 전통예술 가·무·악·고법 대제전’이 3일 광주시 동구 운림동 전통문화관에서 펼쳐진다.

무등울림 국악대제전과 연계해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판소리, 고법, 무용, 기악, 연희(난타, 풍물) 부문에서 참가자들이 학생부·신인부·일반부로 나뉘어 열린 경연을 벌인다. 올해 일반부 종합대상 수상자는 국회의장상을, 학생부 종합대상 수상자에게는 교육부 장관상이 주어진다.



정선심 명창

이날 대회에는 2015년 목포전국국악경연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한 정선심 명창과 서울전국국악경연대회 대통령상을 받은 고현민 명창이 축하공연을 연다.

1988년 창단된 광주국악협회는 지난날 10일 ‘국악인의 날’을 선포하고 ‘국악의날’을 제정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청년예술단’을 마련해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

10일 광주건축문화투어 떠나요

전북과학원 등 선착순 80명 모집

대한건축사협회 광주시건축사회(회장 강현구)가 주관하는 2018 광주건축문화투어 두번째 행사가 오는 10일 충남 서천 등에서 열린다.

이번에 방문하는 곳은 2017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사회공공부문 대상을 수상한 전북 익산시 전라북도과학원, 자연과 곡면을 활용한 건축물인 충

남 서천군 국립생태원, 일제 시대 쌀 보관 창고를 변신시킨 전북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등으로 오전 8시30분 출발해 오후 6시 귀가하는 일정이다.

건축사, 교수, 학생,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선착순 80명을 모집하며 참가비는 2만원(교통·식사·입장료 포함)이다. 마감은 오는 6일까지다.

메일(gjkira@empal.com), 전화(062-521-0025-6) 접수. /김미은 기자 mekim@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국제보청기

자연의 소리...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 완벽방수
- 내구성보강
- 2중단열
-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 6년무상A/S 정기점검



1.시공전

2.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시공

4.시공후

대한건축사업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특허공법



OO초등학교 맞춤형디자인 시공후

6년무상A/S 정기점검

시공전

시공후

원룸건물 맞춤형디자인 시공후

완벽한방수

난연소재

맞춤디자인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특허공법 · 디자인방수 ·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광주전남 대리점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